MB '뇌물 공소시효 완료'로 대비

나머지 혐의 "전혀 몰랐다" 주장 전망… 검찰, "혐의 입증에는 무리 없다"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변호인단과 머리를 맞대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뇌물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공소시효(특가법상 10년)가 지났다'는 논리로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진술과 관계없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논리 전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크게 3가지 갈래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스 비자금 및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등이다.

범죄혐의액은 수백억원대로 의심되고 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0억원을 포함한 뇌물수수 혐의액이 100억원대에 다다르고, 다스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혐의액이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선 긋기와 함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 주장을 펼 것이라는 예상이다.

먼저 이 전 대통령 수사 단초가 됐던 다스 관련 혐의의 경우 본인과 무관하다는 취지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형인 이상은 회장이 다스 실소유주인 만큼 비자금 조성 및 BBK 투자금 회수 과정 등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자금 역시 이상득 전 의원 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2007년 당시 뇌물죄 공소시효가 10년(법 개정 후 현재 15년)인 만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2008년 이후 의심되는 불법자금 수수 혐의와 17억5000만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 주장을, 청와대 문건이 영포빌딩에 보관 중이었던 건 단순 실수라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가져오든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십명에 달하는 측근 인사 조사와 이들이 내놓은 진술 등이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등 문제를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질문지 작성에 들어간 상태다. /뉴시스

아삭한 '밭 미나리' 출시

전주농기센터, '소비촉진 홍보'

전주시 대표 농산물인 전주미나리의 소비촉진과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행사가 지난 10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열렸다.

전주지역에서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전주시미나리연구회가 주최하고 전주농협과 전주시가 지원한 이번 행사는 예로부터 미나리의 주생산지로 명성을 얻고 있는 전주미나리의 우수성을 알리고 미나리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새롭게 출시된 밭 미나리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최근 출시된 밭 미나리에 대한 시식 및 할인행사, 미나리 할인판매, 미나리요리 시식회, 전국단위 유통을 위한 도매시장 핵심 바이어 초청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출시된 밭 미나리의 경우 일반 밭에서 비가림하우스를 활용하고 지하수로 재배돼 논이나 시설재배보다 관리가 쉬워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존 논 미나리와 비교해 줄기 속이 꽉 차고 아삭함도 뛰어나 쌈용으로 소비자의 선호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채규남 기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신청기한 연장

전주시, 내달 20일까지… 대상 농가도 확대

전주시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신청 대상 농지를 확대, 신청기간을 오는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해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2017년 벼 재배사실 확인(사업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농지가 추가되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또 지난 해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대상 제외 품목도 기존의 무와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등 5개 작물에서 인삼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4개 작물로 줄었다.

이와 관련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비로 총 5억 8500만원을 확보한 상태로 총 172ha의 면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균 지원 단가는 1ha당 34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으로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은 하반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오는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기한 내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접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순창서 5t 트럭 전복 2명 숨져

순창에서 5t트럭이 전복돼 함께 타고 있던 모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인 11일 오후 6시50분께 순창군 동계면 한 고갯길에서 내리막을 다릴던 A(45)씨의 5t트럭이 전복됐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A씨와 그의 어머니 B(80)씨가 목숨을 잃었다. /이상민 기자

카센터 불지른 50대 임차인 입건

임대료를 내지 않아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50대 임차인이 자신의 카센터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2일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최모(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0시20분께 익산시 오산면의 한 카센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카센터가 전소하고 옆 타이어 가게의 일부가 불에 타 보험사 추산 5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최씨는 자신이 15년 동안 운영한 카센터에서 1년 동안 임대료를 내지못하고 명도소송에서 져 술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최씨는 경찰의 증거 제시로 자신의 방화를 시인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는 8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서 '드론축구'가 일자리 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주시 드론축구, 일자리 창출 공로상 받아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가 정부로부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시는 8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서 첨단 탄소소재와 드론기술, ICT기술을 융복합한 신개념 레저스포츠인 '드론축구'가 일자리 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 드론축구는 레저스포츠와 드론을 독창적으로 결합해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수상으로 시는 드론축구를 통한 드론 산업화 전략의 우수성을 재확인한 것은 물론 그동안 중점 추진해온 드론축구를 통한 전략적 산업화와 세계화 프로젝트에도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이와 관련 박람회에서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첨단 일자리 '세계적인 탄소도시 전주' △탄소, 드론, ICT 융합 신개념 레저스포츠! '드론축구 메카도시 전주' △청년을 위한 든든한 지원 '청년희망도시 전주'의 3가지 테마로 일자리 정책과 탄소산업, 드론축구 등 4차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향후 유소년용 드론축구 용품을 개발하고, 자유학기제 등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드론축구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국제 드론축구대회 개최 등 내실 있는 드론축구 저변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 노력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에는 대망의 드론축구 세계 월드컵 대회를 개최해 전주를 드론축구를 중심으로 한 드론메카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채규남 기자

평생학습 강사학교 '다른 생각 다른 시선' 강의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풍성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평생학습관이 12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 전북대학교 박물관 2층 강당에서 평생학습 강사와 강사활동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강사학교 '다른 생각 다른 시선' 강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강사학교는 강사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찾는데 역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첫 강의는 전하영 강사(삶과앎 모두의 평생학습 대표)가 초청돼 '평생학습 강사의 시대적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강사들의 열정을 되찾아주는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1년을 3개월씩 나눠 살기(밥장-장석원)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김보통 작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에너지를 가져라(곽동근 대표) △프로강사로 성공하는 3가지 전략(김형환 교수) △강사3인에게 듣는 품격있는 강사로 살아가기(조석중 대표, 박정희 강사, 정문기 강사)를 주제로 한 강연이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오후 12까지 펼쳐진다.

이번 평생학습 강사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강사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과 평생학습 강사포럼 등을 진행하고 기획과 홍보, 마케팅, 성공 사례 공유를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강사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채규남 기자